

2019 년도 2 학기 교환학생 체험기

Columbia College Chicago

영상원 영화과

2017133044 김은경

***CCC 합격 Application**

본교 합격 후 CCC 합격을 위해 필요한 과정들은 이메일로 다 상세히 공지가 될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메일만 수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저의 경우에만 그랬는지 확실치 않지만, 저는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지 않고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합격 후에도 포트폴리오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었고, 다만 선수 이수 과목이 있는 과목들의 수강신청을 할 때는, 해당 수업을 들을 역량이 있다는 것을 증명(?) 하기 위해 교수님들께 이메일로 제 CV 를 보냈었습니다.

***수강신청**

CCC 합격 이후에는 해당교 홈페이지 아이디/비번 생성, 수강신청, Housing, Insurance 등 처리해야 할 스텝들에 대한 자세한 공지가 이메일로 올 테니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때 수강신청은 최대한 빨리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지 기준 수강신청이 시작된 지 꽤 지난 이후 시점에 이메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시면 원하는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의 경우 최소 12 학점에서 최대 16 학점까지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12 학점을 신청하여 파이널 기간을 제외하고는 여유롭게 학기를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타지 생활에 빨리 적응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더 많은 수업을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은 수강신청시 Rate My Professors 를 이용하더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pass 신청**

12 학점 이상 Full Credit 수강 시 Upass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청구되었던 것 같은데, 혹시 신청하라는 연락이 오면 신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Upass 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통카드인데, 시카고의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타실 수 있습니다. 시카고는 대중교통이 꽤나 비싼 편에 속하여, 현지 생활에 Upass 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치안**

치안으로 악명이 높아 걱정했었지만, 제 우려보다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밤늦게 돌아다니실 일이 있다면 친구들과 함께 다니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2020 년 1 월부터 대마가 합법화된 곳이니,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Housing**

CCC 의 사악한 기숙사비 덕분에 Housing 에 대한 고민을 했었지만, 괜찮은 집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수고와 그 기간 동안 들 비용을 생각하여 저는 기숙사를 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후회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비슷한 가격에 괜찮은 근처 아파트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룸메이트를 구하지 않는 이상은 관리비와 택스를 고려했을 때, 짧게 지내다 떠나는 교환학생생활에는 기숙사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Dwight 라는 기숙사에서 생활했는데 한국의 기숙사 개념과는 달라, 세어하우스 구조에 가깝습니다. 제가 묵었던 호실은 4 인 1 실에, 모두 각방을 사용하는 형태로, 화장실 개수도 두 개여서 공유하는 공간은 거실과 주방, 2 인 1 화장실이 전부여서 매우 편리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묵었던 Dwight 같은 Lofts 형식의 숙소는 방에 등이 없습니다. 간접 등조차 없고 방에 따라 창문이 없는 경우도 있어, 밤이 되면 새까만 암흑이 되니 이 점 유의하셔서 플로어 램프부터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기숙사는 Dwight 말고도 몇 곳이 더 있지만, 학기마다 추가되거나 감축되는 경우가 많아 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원하는 기숙사로의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기숙사 신청 시에는 원하는 구조, 예를 들면 1 인실 희망, 혹은 다인실 희망, 또는 제 경우처럼 개인 방에 공유 공간 희망과 같은 형태로, 원하는 '구조'를 신청하게 됩니다. 기숙사마다 보유하고 있는 구조가 다르고, 구조마다 가격이 상이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버디 프로그램**

저는 학교 편의 시설에 대한 정보나 현지 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제 버디로부터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환학생에 필요한 필수 정보들은 Clare 라는 국제 학생 담당자분이 친절히 알려주실 테지만, 생활에 필요한 사소한 정보들을 얻기에는 버디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저는 신청할 때 굳이 버디의 국적은 상관없을 것 같아 국적상관없음란에 표기하여 중국인 버디 친구에게 배정되었지만, 버디를 신청하실 것이라면 한국인 버디로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버디를 신청하게 되면 버디 OT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때 다른 버디들도 모두 만나게 됩니다. 본래 국제학생들과 버디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취지이지만, 대개들 본인이 배정된 버디보다는 자신과 모국어가 동일한 다른 이의 버디들과 친해지게 됩니다. 때문에, 제 버디는 너무나 친절한 친구였지만, 한 친구는 자신의 버디가 별로 도움을 주지 않고 자국의 친구들에게만 연락을 한다며 불평을 하기도 하더군요. 제가 있던 학기의 한국인 버디분들은 모두 친절하셨으니, 버디 프로그램 신청 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음식**

개인적으로 밀플랜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밀플랜을 신청하지 않아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주위 밀플랜을 신청한 친구들 중에 좋은 평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주변에 마트는 Target 과 Trader Joe's 가 있는데, Target 은 공산품과 기성제품을 살 때, Trader Joe's 는 신선품을 살 때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한식이 생각나실 때는 지하철로 1 정거장 거리에 Hmart 라는 한인마트가 있으니 식자재를 구매하셔서 직접 해 드셔도 좋고, 또는 Hmart 안에 한식당이 있으니 식당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또는 두세 정거장 거리에 차이나타운에도 괜찮은 한식 집들이 상당수 있으니 차이나타운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가격대는 조금 있는 편입니다. 추가로 저는 대부분 가보지 못했지만, 시카고에서 친구들에게 추천받았던 식당들을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하여 올려봅니다.

-버거

1. Bar Louie: 화요일에 버거가 5 불 이어서 화요일 저녁에 가면 좋은 곳. 세트에 음료수까지 시키고 팁까지 포함 8 불 안팎. (대표 메뉴: Bourbon BBQ Burger)
2. Epic Burger: 커스텀 가능한 버거. 미국 내 체인점이 몇 개 없음. 고구마 튀김 추천.

-시카고 피자(=Deep Dish Pizza)

Uno, Lou Malnati's Pizzeria, Giordano's 이렇게 세 곳이 시카고 3대 피자로 제일 유명한 곳. 저는 써놓은 순서대로 Uno> Lou Malnati's Pizzeria> Giordano's 였습니다.

-레스토랑

1. The Cheesecake Factory: 치즈케이크로 제일 유명. 식사하기에 나쁘지 않은 곳.
2. Beacon Tavern: 약간 고급 레스토랑이라 가격대가 있음. 주말에는 예약 추천.

-일식

1. Umai: 여러 일식 메뉴가 있음.
2. Niu B: 우마이보다 돈코츠 라면이 괜찮다는 평.
3. Oiistar: 데이먼 역 근처라 거리가 좀 있음. 시카고 내 라면 중 평이 좋음

-중식

1. MingHin Cuisine: 딤섬 맛집

-퓨전음식

1. En Hakkore Sushi Burrito & Poke Bowl
데이먼 역 근처라 거리가 좀 있음. 친구들로부터 강력 추천을 받았던 식당.
게 모양의 튀김이 추천 메뉴

***의복**

바람의 도시로 유명한 시카고는 그 명성답게 굉장히 춥습니다. 10 월 말부터 눈이 오고, 끈이 달리지 않은 모자는 착용할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니다. 저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영하 30 도까지 내려가는 도시라고 합니다. 꼭 두터운 패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9 월 초중순까지는 땀이 날 정도로 해가 뜨거우니 반팔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에는 얇은 옷을 준비해 가지 않아 현지에서 모두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미국에서 쇼핑을 하실 생각이라면 학생 할인을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닥터 마틴 같은 브랜드들은 모두 미국 학생들에게 할인을 적용해주니 즐거운 쇼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2 학기에 파견 가시는 분들은 블랙 프라이데이 주간을 노리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교외 생활**

시카고의 여러 이벤트들에 대한 공지를 이메일이나 포스터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기숙사나 학교 게시판에 있는 포스터들을 지나치지 마시고, 원하는 이벤트를 찾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Open House Chicago 라는 페스티벌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평소에는 입장이 제한되는 여러

건물들에 들어가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저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상반기에는 매우 큰 규모의 푸드 페스티벌이 시카고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이벤트를 찾아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CCC 에 대해**

저는 본교에서 배우기 힘든 교과목들 위주로 수강신청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너무 만족하는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상당히 세밀화된 수업들이 많아, CG 나 프리비즈 같은 작업에 관심이 있던 저에게 너무 잘 맞았던 학교입니다. 교수님들도 유명한 작품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많으셔서 미국의 대형 영화산업의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각 전공별로 수업들이 다양하니 본교에서 찾지 못하는 수업이 있어 막막함을 느끼셨던 영화과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본교의 수요영화관과 비슷하게 CCC 도 매주 Free Screening 을 합니다. 교내 시사실에서 상영할 때도 있고 근처 영화관에서 할 때도 있는데, 특이점은 최신 상업영화들을 정식 개봉 이전에 상영해준다는 점입니다. 제가 있었을 때를 예로 들면 <Joker>(2019)와 <Frozen 2>(2019)같은 영화들을 상영했습니다. 시카고는 영화티켓값이 꽤나 비싼 편이니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